

Scanned by CamScanner

이야기로 듣는 전주, 전주사람들

인 쇄 : 2001년 8월 1일

발 행 : 2001년 8월 1일

지 은 이 : 전주백년사편찬위원회

펴 낸 이 : 전주시

561-7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

인쇄제작 : 애드뱅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205-12

(비매품)

작촌 조병희선생

-----	전주고등학교 8회, 광주학생사건	13
	금융조합	14
	건준위와 도시금융조합	15
	벌통 치던 이야기	17
	정월대보름 돌싸움	18
	전주와 전란(戰亂)	19
	조선시대 사람들과 전주사고(全州史庫)	20
	남박 장, 성밖 장	22
	유곽(遊廓)과 권번(券番)	24
	일제시대 전주의 성안과 밖	25
	경편철도(輕便鐵道)	27
	전주장과 약령시	28
-----	전주아전과 양반	29
	흑석골 두모소	31
	비래방장(飛來方丈)과 보광사	31
	양반 나무장사	32
	해방 후 사회상과 일본	34
	사진찍기의 어려움	34
-----	전주의 시청자리	36
	초록바위	36
	전주의 나무	38
	숲정리와 진북사	40
	객사, 경기전, 화산서원, 사직단	41
	삼례 찰방터와 비비정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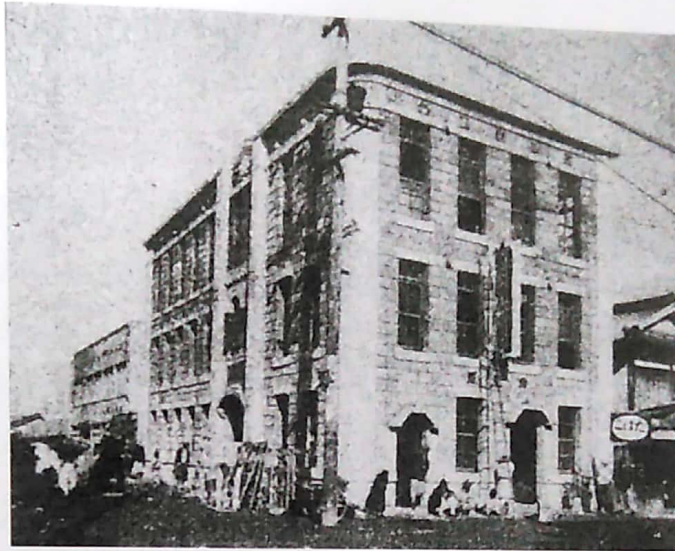
일 불쌍혀. 큰놈들이 떡 서 있으면은 뒤에서 땀 뻘뻘 흘리다가 재미없다고 가버려. 돈만 날리고 가버리지.
그때 돈 없었어. 그런 열성분자들이 있기에 영화가 된 거지. 그쪽 식견이란 게 극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식견이 높았던 사람들이여. 영화는 그때 똘파라 다음이었거든. 그것은 점잖은 사람이 허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때잖아. 영화배우라고 하면 별로 대우 안했어. 요새니까 탈렌트 찾고 영화배우 찾고 그 야단 허지 그 때는 비참했어. 시키는 대로 별짓 다허야 하는데 어떻게 허. 제 뜻에 없는 짓 하는 거 아녀.

■ 전주 음식과 기생문화

인쇄소, 인쇄업이란 게 따로 없었어. 우리가 알기로는 띄엄띄엄 모다 있었지. 그 때 허가 받기가 힘들어요. 책 함부로 못 내요. 참, 고등계 감시 다 받아야지.
전주의 음식점이라고 하면 그때 전주에는 큰 음식점이 일본사람 음식점이었는데 지금 어느 집이라고 허냐, 박다옥이라고 했거든 하까다야. 일본사람 집이 큰 거여. 박다옥 박다(하까다), 비빔밥은 오래돼요. 일제 정도가 아니지. 일제 때에도 평양집이니 뭐니 죄다 다가동에 있었거든. 냉면집 허면서 비빔밥도 허고. 그것이 나중에는 전신전화국 자리가 되고, 그전에 법원이라고 허서 평양집이라고 있었지요. 그때는 남계동이라고 그랬지, 남문에서 다가동으로 가는 길에 큰 음식점 있었어요. 평양냉면. 종업원이 열 그릇이면 열 그릇 착착 들고 자전거 타고 한손으로, 그것 못허면 배달 못해.

그리고 소위 소바라고 하는 거, 메밀국수라고 하는데 국물 없이 먹는 거. 그것은 팔이 있어. 물기 빠지려고, 모르고는 그것 넣고 간장 쳐서 먹으면 난리가 나는 거여. 실패담이 많이 있어요. 처음 가서 먹는 디 짜악 찌클었더니 그것은 한국식이야. 그걸 물에다 섞어 먹는 거는 새로 생긴 방법이야. 원래는 국물에다 찍어서 먹

하카다야(博多屋)



는 것이지. 이렇게 쌓아올렸다고 해서 모리소바, 이를 성(盛)자 밑에 모리소바.
그리고 국물 있는 것은 우동쪽이 많아요. 우동에 계란 하나 들어가면 닭이 들었
다고 해서 쓰기니우동, 달 월(月)자 넣서 여시같이 쪽 빨면 들어간다고 해서 기스
미우동, 저녁에 먹는 것은 요나끼우동, 별놈에 우동이 다 있어요.
일본식 집이 많이 판을 치는 것이고, 그리고 전주에도 몇 군데 큰집이 있었지요.
나는 이리는 잘 알아요. 영남관, 한성관, 그건 호남 굴지의 음식점이여. 그리고
기생들은 다 있어요. 한때는 신태인, 정읍, 거기가 교통의 요충지대라 가서 음식
들 먹고 가고. 거창하게 먹고 가는 거지. 기생들 부르면은 인력거 타 가지고 가서
창 불러주고 돌려보낸다거나, 나중에는 택시 불러서 가고 여기 돌아오는 손님은
거기서 맞이하고... 큰 요정이 이리에도 있었고 전주에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
권번이 아니고 이미 훈련된 사람이 가서 돈벌이하고 직장으로 가 있는 거여. 요
새는 예술단인데 그때는 예술단 아녀. 기생집여. 교방이란게 있죠.
권번이라는 것은 일본 애들이 만든 일제 때 말하는 거요. 그 다음에는 기생조합.
이게 일제 말기에 나오는 거고. 모든 걸 조합, 우마차 조합, 장작 조합 등등 전부
조합으로 엮어놓았으니까. 그때부터는 기생의 역할이, 전쟁 심할 때는 놀러 다닐

■ 사회주의자 찾기

사회주의는 내가 신교수에게 이름까지 적어서 주었거든 그니까, 거기서 정리할 줄 알고 복사도 안하고 막 넘겨버렸어요. 거기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 사실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은 옛날 경찰국 사찰과 형사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당고속되는 사람이 사찰과 경위를 해가지고 잘 알고 있어요. 맨 먼저 거기를 쫓아가서 그 양반한테 구술을 받았거든. 누구누구 찾아보고, 이 양반이 지금 와병인데 정신이 흐려요. 연령은 겨우 70대 중반인데,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찾아봐야 돼요. 젊은 사람으로 사찰과 형사 하던 분이 한 두분 계셔. 그렇다 하더라도 70은 넘은 분들이지만요. 그분들한테 물음물음해서 찾아가야지. 그분들이 더 잘 알고 있고, 막상 공산당 운동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노출될까봐서 잘 얘기 안 한다고, 그리고 잘 몰라요. 조그만한 것밖에 모르니까. 물론 이제 경찰하고 대화하면은 또 군더더기도 많이 있지. 그러기는 하지만은 여러 군데서 취합을 해서 추려내야지.

■ 전주죽집

그런데 이제 옛날 것으로 풍남문하고 비빔밥은 다 나오는데 전주죽 얘기가 안나와요. 죽. 내가 한 열살 내외일 때 할머니네 집엘 가면은 아, 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죽집에서 죽을 가져온다고. 깨죽이라든가, 여러 가지 죽이 있었어요. 손님이 오면은 죽집에서 죽을 사다 주는 것이 대접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죽얘기가 전혀 없이 들어가 버렸거든. 그것이 어느 일부의 현상이냐 하려는 전체 것은 내가 안돌아 다녀서 모르지만 내가 갔을 때 할머니가 그걸 사다 주셔서 여러번 먹은 기억이 있거든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죽이 보편화되어 있었고, 죽집이 여러 군데 있었고, 손님 대접용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꽤 상업화되어 있었다고 생

각이 들어. 작춘선생이나 누구 오래 사신 분께 죽얘기 한번 여쭙봐요. 깨죽이 제일 많이 생각나고, 잣죽, 두 가지는 분명히 생각나요. 아, 고급음식이야. 호박죽은 요근래 고급이지만 그 천한 죽이 호박죽이에요.

■ 전주를 대표하는 노래

전주노래는, 아, 몇번 시도를 했지, 의식적으로, 몇 개 있어요. 근데 안돼. 가령 돌아와요 부산항 같은 것도 서울에서 별로 인기 없는데 부산에서 리바이블 되었다가 올라오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대중가요라는 것이 대중이 좋아해서 불러져야지 보급을 시킨다고 안되더라구. 결국 전주를 대표할만한 가요라는 게 없지요.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의 하나야. 오히려 군산은 하나 있지, 그렇게 널리 안되어 있지만, 군산항 밤부두에 비가 내린다, 그거 꽤 잘 알려줘 있어. 군산항 밤부두에 비가 내린다.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것을 말이야, 80년대 초반으로 기억이 나는데, 전국에 지역개발 문제로 세미나를 하는데 주제발표를 하는데 첫대목에다 군산항 밤부두에 비가 내린다. 나는 그걸 비관적인 것으로 보았던 말이야. 그게 모두 섬 하잖아, 원래는 그게 가 군산의 좋은 노래였다. 그러나 항구의 밤부두에 비가 내리고 캄캄하면 죽은 도시 아니냐, 여하튼 군산은 그런 게 있어.

■ 전주 토박이 마을

토박이 마을, 마을이란게 없고, 사람은, 토박이들로 구성된 것이 하나 있을거야. 나는 한번도 간 적이 없는데 십여명이 모임이 있어. 송○○ 찾아가면, 거기는 그 얘기를 전혀 안 하는데 송○○ 할아버지가 아전출신 일거야, 여기는 아전이라고 하면 불명예스럽게 생각해 가지고 말을 잘 안 하려고 해. 그러나 한번도 안 꺼내는데 내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토박이로

든가. 젊은 작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 아담다방

붓글씨 하시는 황옥선생하고 강암선생하고... 두 분은 뭐, 앉아서 교분을 나눴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을 걸, 그런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 황옥선생님이 60십이 넘으시면서 처음으로 전주에 와서 전시회를, 그때 75년인가 74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아담다방에서 전시를 했는데 내가 취재를 했거든. 그전에는 석전선생이라는 분을, 몰라 다른 분들은 알았다고 하는데, 우리 문학에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내가 취재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묻길래, 내가 첫마디로 그 글씨 무섭대요, 뼈다귀처럼 뭉크러져서 처음 봤을 때, 무서운 감이, 들더라구. 저런 글씨(遊於藝라는 석전선생 글씨), 저 글씨는 부드러운 것 같은데, 처음에는 웅트림한, 굉장히 서늘한 감을, 저분이 바깥출입을 안 하시고 집거해서 작품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하고 교분이 없었던 것으로 난 알고 있어요. 동시대를 살고 가셨던 두 거두가 혹자는, 왜 친교 없이 지냈는가 모르겠다고 그 래도. 하여튼 그렇게 어울려지는 사람들은 아니다. 켈로 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친구는 잘 안 되는 것이야. 저 양반은 또 심리적 으로 그런 것이 있을랑가는 모르지. 이 지역에서 내가 내놓으라는 사람이다, 그 런 것은 있으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점잖은 두 분이, 시기 질투한다든가 하는 것 은 전혀 없었다고, 봐. 둘이 부딪힌 경우는 거의 없었어.

전시공간이 거의 없었죠. 다방에서 하는 것이 상례화되었지. 시화전도 그렇고. 석전선생도 다방에서 시화전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다방에서. 어떤 다방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는 다방을 잘 안가지, 촌놈이 라. 문화행사 많이 했던 다방은, 아담다방에서도 많이 한 것 같고, 그전 다방



석전 황옥

런 우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정서 개인의 그만한 수준 그렇게 되어야 혀.

출입 많이 한 사람이 알텐데. 최
승범선생 잘 알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화랑들이 생기
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런 것들이 용서가, 용서라는 것
이, 개인대 개인의 용서, 가정의
용서, 국가의 용서가 있다고 생
각하는데, 그전에는 뼈다한 모자
쓰고, 내가 시인이다, 화가다, 하
고 다니는 게 남한테 부러움도
사고, 그랬거든. 요즘 그러고 다
닌다면 저거 미친... 그러니 사
회인식, 그러니까, 적어도 중앙
동을 이렇게 모자를 뼈다하게 쓰
고 다닌다든지 하면, 중학생들이
저기 어떤 시인(詩人)인갑다. 그

하나 있는데. 나이 많이 먹은 아줌마여. 언론인들 많이 다니는 데는 곰집이라고 있었어. 오춘도라고 하는 술집인데 언론인들은 매일 외상이야. 돈이 없으니까. 외상도 잘 주고. 근데 지금도 허지, 저쪽에서. 욕을 잘해. 국회의장도, 야 이 새끼야, 야. 이철승씨가 그 집 단골이었고. 지사도 가면, 니가 지사냐, 그래. 지금도 살아있지.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 환갑 때는 젊은 사람들이 환갑잔치도 해줬지. 아들이 서울의대를 나왔는데 서울의대 들어가자마자 데모를 해 가지고 제적을 당했지.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연대서명해서 살려줬지. 그 집 단골 국회의원들이.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그래. 그런데 명멸이 심하지.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를 훨씬 많이 먹었는데 노래를 잘 해서 기억이 나는 거지. 행수기생이지 말하자면.

■ 전주의 막걸리 집

전주극장(현 에프샵) 뒤에 뭐가 있었는데. 그리고 중간에 대폿집이 많았다고. 그 때는 전주가 술먹기가 참 좋았어요. 막걸리, 동동주 해 가지고. 안주가 푸짐해. 가지가지고 굉장하. 안주가 푸짐하게 나오고. 요즘같이 안주 한 접시 주소, 해서 돈 따로 내고 하는 그런 일은 거의 없고.

그리고 대폿집 문화가 생겼다고, 70년대에는. 객사 앞에 동서관통도로(충경로) 없을 때니까. 정읍집이라고 다 쓰러져가는 막걸리 집이 있었다고. 정읍집 멤버들이 재미있어요. 배형식씨, 원광대 조소과 교수, 하반일씨, 죽은 묵산, 운봉, 저 칠판장시 하는 김뽕시기, 유희열도 가끔 오고, 켈로 어렸으니까. 지금 전북일보에 있는 하여간, 권경승씨. 좌우간 전주시내에서 뭘 한 사람들은 거기 한번씩 저녁때마다 안 들리며 큰일나. 정읍집 그 사람이 김뽕씨네 잊어버렸네. 김재현씨가. 거기가 많이 모였지. 그때마동 모였는데 다 찌그러지는 평상 놓고 술장사를 해도 그 멤버들이 대충 차면 문 딱 닫아버려. 뜨내기손님은 거의 없어. 문 딱 닫

어 놓고, 아, 죽은 토림선생, 작년에 작고하신. 거의 저녁마다 개근하는 양반여. 문 닫아놓고 그 집 술 떨어질 때까지. 먹고 마시고 초저녁에 떨어지면 주인이 술 도가니 또 갔다 와야 된다고.

■ 전주의 고층건물과 한옥

전주에 아파트는 지금 남원 가는 길. 그 아파트(현 전통문화센터 자리)가, 그거 안 부셨는가? 그거하고 예수병원 산마루에 공무원아파트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인후아파트 전에 아파트가 많이 생겼을 거야. 나 별로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 없어서, 아파트 문화가 생기면서 전주가 많이 변했지.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일 거야. 나도 쪽 단독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갔는데 편하기는 허드만. 처음 생겼을 때는 인기가 대단했지. 나도 인후아파트가 추첨할 때, 70년대 중반인데. 전주여중에서 추첨을 했다고. 뽕뽕이 돌려 가지고 했는데 전주여중에 사람이 꼭 찼었으니까. 분양 받을라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분양 안 받길 잘했드만.

전주에 높았다기보다는 독특하다고 하면은 산업은행 건물하고 우체국건물, 전주역, 옛날 전주역. 모양은 그대로인데 지금 전주역이 크지. 그전의 전주역은 사찰 같이 단청이 다 되어있고. 그니까 아주, 우리 중학교때 교과서보면, 교통하면 사진은 달랑 하나 나오지. 전주역. 아주 독특했지. 그전에는 광장이 넓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왜 그러냐며는 광장을 갈라면 또랑을 건너가야 했거든. 그 앞에가 개울이야. 지금 문화춘 있는 디가 인봉리이거든. 마당재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전주역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전북은행 있는 여기가 합류지점여. 그러면 그 물이 전주역 앞으로 해서 코아백화점 앞으로 해서 금암로타리 쪽으로 해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전주역을 갈라면 바로 이 도로에서, 오거리에서 쪽 가다가 거기서 다리를 건너가야 있으니까. 광장이 그렇게 넓지 않았거든.

그 안에 들어가면 파출소도 있고. 집도 있고. 우측으로 철도원들 관사도 있고.

해방공간에 전주지역에는 소규모 사회주의자만 있었을 것여. 남로당 계통으로 그런 일이 있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고. 6·25전후로 해서, 6·25전에 월북하셨던 분들도 6·25와중에서 다 돌아가셨고. 그 가까운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

그때 보통 스물, 삼십세였을텐데 지금 살아 있더라도 팔십, 구십들 아녀. 돌아가셨고, 전쟁 와중에서 돌아가시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전쟁 끝나고 나서 핍박을 많이 받았지. 80년대, 이때까지도. 70년대 중반만 해도 김종필이가 중앙정보부장 할 때는 연루된 가족들한테 연좌제 폐지한다고 사신을 짝 보냈었거든. 그렇지만 그게 말만 그렇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얘기들을 안 헐라고 그럴 거여. 하도 그때 고생한 세월들이 고통스럽고, 또 반공주의자들이 바글바글한데 자꾸 얘기해 봐야... 근데 성격적으로 분명히, 사회주의자하고 공산주의자하고 구별되어야 하고, 그리고 남로당은 또 거기서 가지가 틀리고 그러니까,

■ 전주 다방문화

전주의 코아방송이면 나도 준회원은 되는데. 그냥 거기서 나온 얘기, 거기서는 재미있게 듣지마는 나오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지, 뭐. 코아가 있기 전에는, 그전에는 다방 갔지. 다방가에서 인제 아침에 출근시간 전후로 해서 간단히. 뭐. 그전에는 6,70년대에는 모닝커피라는 것이 유행을 했네. 아침에 가서 커피 한 잔 시키면 계란 노른자 하나까지 딱 넣어서 다방 마담이 갖다 주고. 귀한 청자담배도 살짝 내밀어 주고 그랬거든. 물론 돈이야 다 받지만.

그럴 때는 인제 아침에 모닝커피 한 잔 하면서 엿저녁에 술먹은 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30분 앉아서 노닥거리다가 또 들어가서 일하고 그런 것이지. 저녁때는 보통 대포집에서. 코아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뭐 다방이지. 다방이 성업 중이었을 때니까. 어디라고 딱 하기는 뭐하지만 그전에 중앙동에는 아담다방이라고

있었어. 그 건너편에 교차로 다방, 그 풍남다방이든가, 풍전인가. 지금 가족회관은 김○○ 아들이니까, 그 집 가서 물어봐.

지금은 코아방송인데. 거기서 인사도 하고 별것 다하지. 보통 낭설을 갖고 이야기하다보면 좀 부풀려지고. 자꾸 얘기가 퍼져 나가면. 말이라는 게 한발 건너가면 부는 것인 게. 그러다 근원지를 찾다보면 거그, 아, 엉터리다, 하면 끝나는 것이지.

오늘은 이만만 하지, 그러고 또 얘기할 것 있으면 또와. 내가 이 수준의 얘기는 해 줄게. 옛날 지명도, 근래에나 알지, 그 전에는 잘 모르는데. 그것도 누가 얘기하면 아 그렇지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내가 먼저 말하기는 어려웁지. 옛날 지명 이야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맨날 옛날에는 다 그런 식이지.